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강화

도, 가축방역심의회 열고
경기 사육돼지 반입금지

거점소독시설 16곳에서
18개소로 확대 운영

전북도는 경기도 파주와 연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라 한층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지난 18일 최용범 행정부지사 주재로 도내 방역전문가와 생산자단체,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가축방역심의회 심의결과 발생지역(경기도) 사육돼지에 대해서는 별도조치 시까지 우리도 반입을 무기한 금지하기로 했다.

도내 모든 시군에 설치 운영 중인 거점소독시설 16개소를 19일 18개로 확대 운영하고, 익산 왕궁 밀집사육지역에는 소독초소 3개소를 별도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 추진 중인 방역대책에 대해서도 일선 현장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 유무를 꼼꼼히 점검해 나가고 있다.

17일 오전 6시 30분부터 48시간동안 돼지농장 등에 발령된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 기간 중 도 자체 점검반을 구성(5개반, 10명)해 이동중지명



새만금 개발공사 창립 1주년

촬영을 하고 있다.

19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에서 열린 새만금 개발공사 창립 1주년 기념식에 송하진 도지사

령 이행 여부를 직접 현장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은 없었다.

이와 함께, 시·군 및 농협 공동방제단 보유 소독차량(72대) 등을 총동원하여 방역취약 지역(밀집단지농장, 축산시설 주변 등)에 대한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전화예찰요원(27명)은 매일 도내 사육중인 돼지농장(744호)에 전화 문진을 통해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있다.

전북도는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는

ASF 발생 및 전파 방지를 위해 농장 및 관련시설에 대한 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줄 것과 ASF 의심증상 여부를 관찰해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한 신고를 당부했다.

/김진성기자

익산 왕궁 축산단지 재변신 기획 마련

현업조사 전량 매입 정부 예산안에 118억원 반영

새만금 상류 수질개선, 악취 제로화 실현 '청신호'

새만금 수질악화, 악취발생의 주범 익산 왕궁이 변하고 있다.

수년전까지 호남고속도로 익산~삼례 구간은 왕궁 축산단지로 인한 고약한 가축분뇨 냄새로 차창을 열고 달릴 수 없는 곳으로 유명했으나, 최근 그 구간을 통과해본 사람들은 악취의 빈도와 강도가 현격하게 줄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정부와 전북도가 왕궁 환경개선을 위해 '왕궁 정작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을 수립, 2011~2019년까지 1619억원을 투자하여 현업조사 39만㎡, 휴·폐업조사 21만9000㎡를 매입하고 가축분뇨로 오염됐던 왕궁내 '주교재'를 생태습지로 복원하는 등 꾸준

히 노력을 펼친 결과다.

이로 인해, 왕궁의 가축분뇨로 인해 오염이 심각했던 익산천은 총인(T-P)이 2010년 4.59mg/L에서 2018년 0.17mg/L로 96.3% 개선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왕궁에는 아직도 81농가의 13만3000㎡의 현업조사에서 돼지 72천두를 사육하고 있어 재래식 사육방식으로 인한 악취발생과 가축분뇨 유출 가능성이 내포하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남아있는 현업조사를 전량 매입하여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함으로써 그간 어렵게 이뤄온 성과가 퇴색하지 않도록 수질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잔여 현업조사 13만3000㎡를 3개년(2020~2022)동안 389억원을 투자하여 전량 매입할 계획을 수립, 지난 3월부터 수십 번 세종청사와 국회를 넘나들며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설득 작업을 나섰다.

기재부의 1차심의에서는 현업조사 매입 근거가 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 상 왕궁 특별관리지역 기한이 올해 12월에 만료된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도는 이에 굴하지 않고 새만금사업법상 재정적 지원 조항을 들어 환경부와 기재부를 논리적으로 설득, 최종 정부 예산안에 2020년 국비 요구액 123억 중 118억을 담

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완벽한 사업 추진을 위해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 익산 을)의 대표발의로 왕궁 특별관리지역 기간 연장을 위한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8월 국토교통위를 통과했다.

노형수 도 새만금수질개선과장은 "내년 현업조사 매입 확보를 위해 마지막까지 지역 정치권과 공조해 새만금상류 수질개선과 왕궁 악취 제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익산 쌍릉 발굴현장서 문자없는 묘표석 발견

문화재청-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 공개

문화재청(청장 정재숙)과 익산시(시장 정현율), 원광대 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소장 최완규)가 시행한 익산 쌍릉(사적 제87호) 발굴조사 중 소왕릉에서 묘표석이 확인



가공되었고, 몸체는 둥근 사각형 형태다. 이들 두 묘표석은 문자가 새겨지지 않은(무자비, 無字碑) 형태로 발견되었다.

이번에 묘표석이 나온 소왕릉의 봉분은 지름 12m, 높이

2.7m 정도로, 안감색 점질토와 적갈색 사질점토를 번갈아 쌓아올린

관축기법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대왕릉 관축기법과도 유사하다.

묘도는 석실 입구에서 남쪽으로 길게 뻗어 있으며, 규모는 최대 너비 6m, 최대 깊이 3m, 현재까지 확인된 길이는 10m 가량이다. 일정한 성토(盛土), 성질이 다른 흙을 서로 번갈아 가면서 쌓아올리는 기술을 통해 묘도부를 조성한 후 퇴파한 결과 판단된다. 폐쇄부는 점질토와 사질점토를 번갈아 쌓았다. 묘도부 10m 지점 끝단에서는 다듬은 석재를 이용해 반원형상의 석재를 놓아 묘역의 범위를 표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왕릉에 대한 발굴조사는 2019년 4월 고유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봉분과 묘도의 축조과정과 당상을 파악했으며, 일제강점기 당시 발굴 흔적과 그 이전 도굴 흔적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발굴조사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국내 최초로 왕릉급 고분에서 두 종류의 묘표석이 발견된 것이다. 석비(石碑)형으로 된 것과 석주(石柱)형으로 된 것이 나왔는데, 석비형 묘표석은 일반적인 비석과 유사한 형태로 석실 입구에서 약 1미터 떨어진 지점에 약간 비스듬하게 세워진 채로 확인되었다. 크기는 길이 125cm, 너비 77cm, 두께 13cm이며, 석실을 향하고 있는 전면에는 매우 정교하게 가공되었고, 그 뒷면은 약간 불룩한 형태다.

석주형 묘표석은 일제강점기에 훼손된 봉토 내에서 누어진 상태로 발견되어 원래 위치인지는 불분명하다. 길이 110cm, 너비 56cm의 기둥모양으로 상부는 둥글게

가공되었고, 몸체는 둥근 사각형 형태다. 이들 두 묘표석은 문자가 새겨지지 않은(무자비, 無字碑) 형태로 발견되었다.

이번에 묘표석이 나온 소왕릉의 봉분은 지름 12m, 높이 2.7m 정도로, 안감색 점질토와 적갈색 사질점토를 번갈아 쌓아올린 관축기법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대왕릉 관축기법과도 유사하다.

묘도는 석실 입구에서 남쪽으로 길게 뻗어 있으며, 규모는 최대 너비 6m, 최대 깊이 3m, 현재까지 확인된 길이는 10m 가량이다. 일정한 성토(盛土), 성질이 다른 흙을 서로 번갈아 가면서 쌓아올리는 기술을 통해 묘도부를 조성한 후 퇴파한 결과 판단된다. 폐쇄부는 점질토와 사질점토를 번갈아 쌓았다. 묘도부 10m 지점 끝단에서는 다듬은 석재를 이용해 반원형상의 석재를 놓아 묘역의 범위를 표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왕릉은 석화공주와 관련된 설화를 간직하고 있는 고분으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지만, 이번 발굴에서는 이와 관련된 적극적인 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봉토나 석실의 규모와 품격에 있어서 왕릉급임을 확인했다.

특히 이번에 발견된 묘표석은 각각 석실입구와 봉토 중에 위치하고 문자가 없는 점에서 무덤을 수호하는 진묘(鎭墓)와 관련된 시설물로 추정할 수 있으며, 백제왕실의 장묘제 연구에 새로운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남은 조사와 인근 대왕릉과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주인공의 실체가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익산=장영원 기자

JJCTV 지방자치TV

| 지 | 역 | 문 | 화 | 콘 | 텐 | 츠 |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YouTube KakaoTV NAVER Google Daum ch.224 tv ch.253 tv ch.285

JJCTV전북총국 : jjctvjeonbuk.com TEL :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222 승주빌딩 5F
JJCTV본사 : jjctv.co.kr TEL :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 23F